

가해

연중 제13주일은

기초 자료

교황 주일 

부산교구 청소년사목국

교황 주일

✓ 사도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대축일(6월 29일)과 가까운 주일

베드로의 후계자이신 교황님이 교회를 일치의 길로 이끌고,

모든 신자를 참된 진리의 길로 이끌 수 있는

용기와 힘을 지닐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.

교황의 수위권과 무류성

"너는 베드로이다.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...

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." (마태 16,18-19)

베드로, 그리고 베드로의 후계자인 로마교구의 주교(교황)가

전 세계 주교단의 수장이 되는 수위권을 지니고 있다고 여김

=> 교황은 교회 안에서 최상의 자리이지만,

그가 수행해야 할 일은 모든 이들의 종이 되는 것(=종들의 종)

✓ 무류성: 교황이 교회 안에서 신앙과 윤리에 관해 선포하는 바는

오류가 없다고 여기는 것

=>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일치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교리이므로

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받아들여야 한다.

하느님의 거룩한 사람

"우리 집에 늘 들르시는 이분은 **하느님의 거룩한 사람**이 틀림없습니다."

(2열왕 4,9)

엘리사는 이 여인이 아들을 갖게 해주고, 죽은 아들을 되살려 주는
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느님의 거룩한 사람임을 드러냄

=> 야이로의 딸, 라자로 등을 살려주시는 예수님이야말로
하느님의 거룩한 사람, 곧 하느님의 아들이시다.

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된 우리

"우리는 **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**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.

...우리도 **새로운 삶**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." (로마 6,4)

예수님의 부활로 그분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우리

=> 새로운 삶이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을 위하여 사는 것

"주님의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." (오늘 화답송)

=>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은

우리의 능력이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, **하느님의 자비하심 덕분**이다.

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다

"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."

(마태 10,37)

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사랑하라는 권고이며,

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가족들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뜻

"예언자를 예언자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예언자가 받는 상을 받을 것이고..."

(마태 10,41)

그들이 지닌 사회적 지위 때문이 아니라, 하나님께 선택되었기에

제자들을 받아들이는 이는 그들이 받을 상을 받게 될 것이다.

=> 제자들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지 말라는 예수님의 가르침

교황님을 위하여

"하느님께서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
이 세상의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셨습니다." (1코린 1,27)

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이들을 선택하시는 것이 하느님의 일하시는 방식

교황님이 자신을 더욱 낮추어
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닮은 종들의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.

또한, 하느님의 일을 하는 모든 이에게
물 한 잔을 나눌 수 있는 신앙인이 되도록 하자.